

### 영국, 대형할인매장 우유판매가격 물보다 싸다

영국 대형할인매장들인 테스코, 세인즈버리, 모리슨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가격할인 전쟁으로 우유가격을 생수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여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영국 농민연맹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할인매장들은 최근 우유 1리터에 45펜스(794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테스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명 생수는 리터당 88펜스(1,553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이미 영국 낙농가들의 유대가 생산비에 비해 리터당 3펜스가 낮으며 매년 30%의 낙농가가 폐업을 한다며 저가 할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저가 판매 전략이 장기적으로 고객들에게 상품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다며 유통업계의 감시 경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테스코 관계자들은 자사에 우유를 공급하는 농가들은 공정가격정책에 따라 리터당 28.18펜스(497원)의 유대를 받으며 추가 지원혜택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www.farmersguardian.com 1월11일자)

### 캐나다, 온타리오주 낙농가 감소 우유 생산량증가

지난해 10월 기준 캐나다 온타리오주 낙농가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으나 우유생산량은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캐나다 낙농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낙농가수는 4천2백농가로 1년간 44농가가 폐업하였으나 신규 우유쿼타 지원프로그램으로 26농가가 새로 목장을 시작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우유생산량은 25억리터로 전년도 24억8천만 리터에 비해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농가가 유가공업체로부터 받은 유대는 모두 18억8천만 달러로 이중 원유운송에 6천5백만달러, 판촉비용에 4천5백만 달러, 연구지원에 1백만달러, 유질관리 프로그램에 4십만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타리오주 낙농가들은 젖소검정사업비로 150만달러를 지불하였으며 낙농가 단체는 연간 매출이 1천6백만달

러, 순익이 4만3천달러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www.betterfarming.com 1월14일자)

### 일본, 구제역 이후 가축전염병등 관련 법 개정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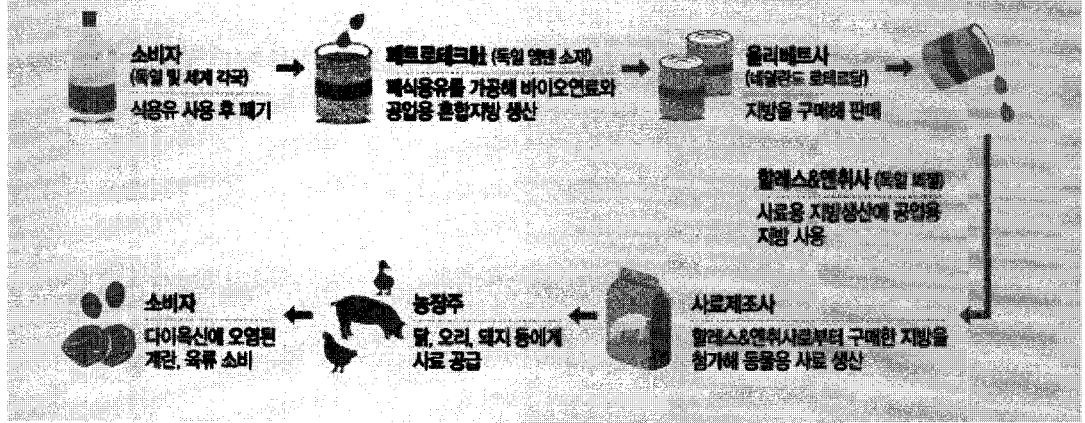
일본에서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관련 법안의 개정을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적극 검토 건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한신 대지진에 필적하는 국가재해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이나 구제역 대책특별 조치법의 영구화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마친 변호사들은 피해 농가의 보상이 환축, 유사환축, 백신접종 가축간에 차이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며 도살처분 가축의 국유지 매물 가능 입법화, 지방자치단체간 별도로 있는 구제역 대응 지휘계통의 일원화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를 위해 변호사들은 피해농가, 수의사, 상공업자, 행정관계자들을 직접 방문 피해 상황, 영향등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농업신문 1월12일자)

### 더 싼 사료만 찾는 '축산공장들'... 탐욕이 부른 '人災' 독일發 '다이옥신' 파문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연초부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유럽 소비자들은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최대 77배나 함유된 독일산 가금류, 계란, 돼지고기 등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자 충격에 빠졌다. 지난 2008년 멜라민 유제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열악한 식품안전성을 비판했던 유럽연합(EU)은 독일발 다이옥신 파문이 유럽 식품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한국과 슬로바키아에 이어 지난 1월 12일 중국이 독일산 계란과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공식 발표하는 등 이번 사태는 유럽권을 넘어 확산되는 추세이다.

### 다이옥신 오염 사료 제조 및 유통과정



다이옥신 오염 사료 제조 및 유통 과정

#### ◆ 공업용 지방이 동물사료로

독일발 다이옥신 오염 축산물 사건은 동물사료업계의 부도덕성 그리고 정부의 부실한 감시시스템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축산업의 대형화, 산업화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더 많은 고기와 계란, 육가공을 더 싼 가격에 슈퍼마켓에 공급하기 위해 축산업이 거대한 공장 생산라인처럼 변해버렸으며, 저렴한 사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제조과정에서의 오염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동물사료에 들어간 공업용 지방이다. EU 규정에 따르면 공업용 지방은 식용 동물사료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독일 사료제조업체는 공업용 지방을 첨가한 사료를 생산해 농장 등에 제공했고, 이 사료를 먹은 동물들이 생산한 축산물은 기준치를 훨씬 넘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지방 그 자체는 다이옥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제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 ◆ 부실한 감시시스템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이옥신 오염 축산물 파문이 발생했다. 지난 1999년 벨기에에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계란이 전 유럽에 유통되자 대규모 리콜 소

동이 빚어졌다. 당시에도 사료가 문제였으며, 벨기에 축산업계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관리부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다. 2008년에는 다이옥신이 허용치의 80~200배나 많이 검출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가 한국 등 25개국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같은 해 이탈리아산 모차렐라 치즈 등 유가공품에서도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각국과 EU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관련조항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독일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다이옥신 감시를 사실상 업체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제대로 신속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오염 실상도 독일의 한 민간 사료회사 연구소가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겨우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문제는 사료제조 기준 강화로 과연 다이옥신 오염 식품 공포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 전문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뒷밭에 닭을 풀어놓고 유기농 방식으로만 키워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0% 안전한 먹거리를 이 지구상에서 찾아내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